

송화선 장기(掌記)에 나타난 20세기 초 면직물의 종류와 특징

장수현 · 이은진[†]

경상국립대학교 의류학과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arly 20th Century Cotton Textiles in Song Hwa-seon's Janggi

Soohyun Jang · Eunji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ust 21, 2024; Revised October 1, 2024; Accepted October 18, 202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literature review is to identify the types of cotton fabrics recorded in the accounting record documents of Song Hwa-seon, a wholesaler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o clarify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irst, the changes in the cotton indust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examined through ancient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Next, the types of fabrics that could be classified as cotton fabrics in Song Hwa-seon's Janggi were extracted, and the frequency of each type was analyze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tton fabrics recorded in the Janggi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and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at the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tton fabrics recorded in the Janggi could be classified into 12 types, with Gwangmok being the most frequent, and Ok-yangmok being the second most frequen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Western and Japanese cotton textiles, were distributed in the modern Korean market. Third, while imported cotton fabrics of broad width were popular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and for traditional cotton textiles, characterized by a narrow width was also high in the domestic market.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textiles, Korean traditional cotton textiles, Korean modern cotton textiles, Early 20th century cotton textiles, Janggi; 한국 전통 직물, 한국 전통 면직물, 한국 근대 면직물, 20세기 초 면직물, 장기

I. 서 론

1876년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20세기 초 우리나라에는 외래문물이 대거 수입되었다. 이때의 외래문물에는 다양한 옷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기계 직 면직물은 수입 직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품목

이었다. 수입된 면직물은 우리나라에서 수직으로 직조한 전통 면직물인 무명에 비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도시를 중심으로 소비되었다 (Park, 2014). 이처럼 면직물이 수입됨에 따라 이 시기의 문헌에는 종전의 기록들에는 없었던 다양한 면직물의 명칭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반영되어 이 시기의 복식에도 새로운 면직물이 사용되었음을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

[†]Corresponding author

E-mail: imjeann@hanmail.net

용된 여러 면직물의 정확한 명칭이나 특성을 규명하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근대 면직물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당시 개항한 조선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기록한 자료를 통해 근대에 수입된 면직물의 명칭과 그 비중을 조사한 경우가 많다. 그 예로 Park(2014)은 러시아, 조선총독부 등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개항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직물이 수입되는 양상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 의생활 변화를 고찰하였다. Chun and Kang(2019)은 일제강점기 당시 내한했던 외국인들이 조선의 일상을 기록한 저서와 러시아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 조선의 직물산업을 고찰하였다. Kim(2018) 또한 구한말의 외교 문서와 무역 보고서에 기록된 수입·수출 직물을 분석하여 당시의 무역 상황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 Kim(2021)은 무역 통계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개항기 일본에서 수입된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무역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무역 통계 자료를 통해 개항기를 비롯한 20세기 초에 쏟아져 들어온 수입 직물의 명칭과 양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무역과 생활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분석 대상 자료에 등장하는 각 직물의 명칭별 개념과 특징을 밝히지는 못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면직물의 의미와 특징을 조사한 사례가 있다. Lee(2020)는 반포(斑布)의 시대에 따른 의미 변화와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Kim(2022)은 개항기 우리나라 사회에 큰 파급을 일으킨 옥양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면직물 외에 다양한 면직물들의 명칭별 구체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새롭게 나타난 면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명칭별 개념과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 시기 복식 유물에 사용된 면직물 소재의 명칭을 호칭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사용된 옷감을 근거로 복식 유물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II. 조선 후기 면업의 변천

조선시대에는 농민들이 직접생산자로서 작물을 재배하여,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는 자급자족 형태의 직물수공업이 발전하였다. 특히 면직물은 견직물에 비해 튼튼하고 세탁이 편리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옷감이었다. 면직물은 복식의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의 기능, 조세 납부의 수단, 대외 교역의 주요 수출 품목 등 17세기 말까지 유통경제를 지배하던 일반적인 등가물로 활용되었다(Lee, 2005).

17세기에는 상공업 발달, 수취제도 개편, 국가 간 교류, 통상체결을 통한 무역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면업(綿業)에 변화가 나타났다. 논밭에 매기던 조세인 전결세의 경우 선박으로 쌀을 비롯한 곡물을 운송하기 어려운 산군(山郡)은 곡물 대신 면포(綿布)나 마포(麻布)로 징수하도록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의 삼남지방은 면직물이나 마직물로 조세를 납부하였다(Pang, 1984). 하지만 면화는 경작 조건이 까다로워 다수의 지역은 면화를 안정적으로 자급하는 것이 어려웠고, 면포를 자급하지 못할 시에는 시장에서 면직물을 구하여 납세하는 경우가 많았다(Pang, 1984).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18세기 무렵에는 면직물이 자급자족하는 물품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수요자가 분리된 상품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에 조선 내 전국 장사에서 취급한 직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면포 258곳, 저·마포 175곳, 명주 73곳이었다(Kwon, 1996). 이처럼 면직물은 직물 중에서도 상품으로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었다.

한편, 서양목(西洋木), 즉 기계로 짠 서양산 면직물은 이미 개항 이전부터 중국 상인과 왜관(倭館)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고 있었다(Kwon, 1996). 그래서 서양목은 당목(唐木) 또는 왜목(倭木)이라고도 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2010). 1847년(헌종 13년)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따르면, 서양목이 조선에 들어온 이후로 토산의 무명이 쓸모가 없게 되어 백목전 상인이 직업을 잃게 되기에 이르렀으며, 북경 상인인 연상(燕商)들이 서양목을 사들여 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Bibyonsa, 1847). 이를 통해 19세기 초 조선 내 시장에서 서양목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던 서양목은 19세기 조선의 면업 발전이 정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9세기 초 개항 이전까지 백목전 상인은 국내 무명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상태로 서양목을 수입하고 판매하였다(NIKH, 2010).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양목은 판매량이 증가한 데 비해, 조선산 무명의 판매량은 줄어들었는데(Bibyonsa, 1847), 이는 백목전뿐만 아니라 청포전(靑布廩), 포전(布廩) 상인

도 서양목을 수입·판매하였기 때문이었다(NIKH, 2010). 더욱이 서양목의 인기로 인해 국내 직조 기술의 개발이나 설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IKH, 2010).

개항 이후에는 기계직 면직물의 수입국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선으로 수입되는 면직물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기존에 서양목은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수입되었으나 1876년에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일본이 조선으로의 직물 수출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Park, 2014). 그 이후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청나라를 비롯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서양의 각국과 통상조약을 맺었고, 조선으로 유입되는 직물의 수입국이 다변화함에 따라 직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Park, 2014).

특히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중계무역에 그치지 않고 기계직 면직물을 직접 만들어 조선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지(韓國志)』에 따르면 1877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을 통해 수입된 물품의 88.3%가 유럽산이었다(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of Russia, 1900/1984). 그런데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방직업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영국제품의 중계무역 대신 직접 만들어 조선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Kwon, 1988). 영국산 양포는 광택과 외관이 좋으나 내구성이 나빴기 때문에 농민들은 조약하나 내구성이 뛰어난 토포(土布), 즉 조선산 무명을 선호하였다(Kwon, 1988). 일본은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여 품질은 토포와 비슷하되 가격은 더 저렴한 면직물을 생산·판매하여(Kwon, 1988)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갔다(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of Russia, 1900/1984). 또 직물폭 면에서도 36인치 또는 38인치 광폭인 영국산은 우리 전통 의복의 제작시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일본산은 조선의 무명과 비슷한 소폭으로 생산하여(Park, 2014) 조선의 옷감으로 더 적합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저렴한 노동력과 조선과 가까운 거리 덕분에 영국산 면직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한 면직물을 조선에 판매할 수 있었다(NIKH, 2010). 그 결과 일본산 면직물이 조선의 시장을 잠식하였다(Kwon, 1988).

한편 외국의 기계직 면직물이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국내 직조업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내의 소규모 직조업자들은 개량식 면직기를 도입하여 근대식 제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애국계몽운동으로 인한 민족자본의 소규모 직조공장들

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Kyungbang, 2009). 이 시기에 설립된 회사로는 경성방직주식회사, 김덕창염직공소 등이 있다. 경성방직은 1923년에 첫 제품을 생산하였고, 김덕창염직공소는 1921년에 동양염직주식회사로 발전하였다(Kyungbang, 2009). 일본 자본으로 1917년 부산에 설립된 조선방직주식회사는 1922년부터 면사 및 면포 생산을 시작하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a).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 생산 공장제 면직물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기 초 장기에 기록된 면직물이다. 장기는 상품 매매에 관한 품명과 가격 또는 발등의 매매에 관한 물목을 적은 기록이다(Cho & Lee, 2016).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홍천읍 시장에서 주로 활동한 도매상인 송화선의 장기를 조사하였다. 장기는 당시 민간의 상거래를 보여주는 문서로, 송화선의 장기는 『물목, 보부상물목』, 『홍천읍 송화선 보부상물목』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장기에는 극히 일부의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한글로 적혀있으며, 수량과 금액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한국복식사, 염직사 뿐만 아니라 국어사, 경제사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Table 1>처럼 수록된 장기 160건 중 144건이 1910년대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옷감, 의복, 염료, 실 등이 포함되는 복식류와 식품류, 생활용품류 등의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송화선 장기의 기록 시기인 1910년대를 중심으로 하고, 그 전후 20세기 초의 신문, 고문서 등의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전통적인 면업이 변화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부터 기계직 면직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된 19세기 말까지 기계직 면직물이 당시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장

Table 1. Janggi age distribution

Age	Number
1910s	144
1920s	1
anonymous	15
Total	160

기에 기록된 면직물을 고찰하여 20세기 초 국내에 유통된 면직물의 명칭을 조사하였다. 셋째, 면직물의 명칭별 기록된 횡수를 분석하여 해당 면직물의 활용 빈도를 파악하였다. 넷째, 면직물의 명칭별 개념,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먼저, 『비변사등록』과 같은 고문서와 복식사, 경제사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의 면업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송화선의 장기에서 면직물로 분류할 수 있는 직물의 명칭을 모두 추출하고 명칭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 『조선면업사(朝鮮綿業史)』, 『조선회보(朝鮮彙報)』의 기사 「조선향염직물명칭유휘(朝鮮向染織物名稱彙)」, 『한국지』,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장기에 기록된 면직물의 명칭별 개념,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

IV. 송화선 장기에 기록된 면직물

송화선 장기에는 면직물이 총 307회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에 기록된 면직물을 <Table 2>처럼 광목(101회, 32.9%), 옥양목(57회, 18.6%), 당목(5회, 1.6%), 백난목(54회, 17.6%), 목모본단(27회, 8.8%), 반포(24회, 7.8%), 모릉(12회, 3.9%), 백목(10회, 3.3%), 오승포[오승]·사승포[사승](6회, 2.0%), 마미단(5회, 1.6%), 개량목(5회, 1.6%), 칠포항라목(1

Table 2. Cotton textiles recorded in Janggi

Type of textile	Frequency	Percentage
Gwangmok [광목]	101	32.9
Ok-yangmok [옥양목]	57	18.6
Dangmok [당목]	5	1.6
Baengnanmok [백난목]	54	17.6
Mongmobondan [목모본단]	27	8.8
Banpo [반포]	24	7.8
Moreung [모릉]	12	3.9
Baengmok [백목]	10	3.3
Oseungpo · Saseungpo [오승포 · 사승포]	6	2.0
Mamidan [마미단]	5	1.6
Gaeryangmok [개량목]	5	1.6
Chilpohangnamok [칠포항라목]	1	0.3
Total	307	100

회, 0.3%) 등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1. 광목(廣木)

광목은 방직기계를 사용해 평직으로 짠 두터운 면직물이다(Kang et al., 2015). 광목이라는 명칭은 소폭인 무명과 대비하여 폭이 넓어서 붙은 명칭이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b). 광목은 문헌에 따라 조포(粗布)(The Dong-a Ilbo, 1932a), 시팅(sheeting)(The Dong-a Ilbo, 1932d) 등으로도 기록되었다. 광목을 표백하지 않고 직조한 그대로 파는 것을 생광목(生廣木)이라고 불렀는데(The Dong-a Ilbo, 1932d), 이를 통하여 표백처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목류는 장기에 기록된 다양한 면직물 중 빈도가 가장 높다. 광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101회(32.9%) 기록되어 있다. 광목류의 명칭으로는 <Table 3>처럼 ‘삼갓무광목’, ‘구용도광목’, ‘경목’, ‘문개량광목’, ‘갓문개양’, ‘갓무구용도’, ‘광목大’, ‘별상광목’, ‘광목선포’, ‘복부광목’, ‘중목[등목]’ 등이 있다. 그리고 회사명이나 상표명이 붙지 않은 ‘광목’도 기록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일반 광목’으로 호칭한다.

광목류 중에서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삼갓무광목이다. 삼갓무광목은 광목류 총 101회 중 67회 기록되어 있다. 삼갓무광목은 장기에 ‘삼갓모’, ‘삼갓무’, ‘삼갓무’, ‘갓무’, ‘갓모’ 등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때 ‘삼갓무’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산 광목 ‘쓰

Table 3. Names and frequency of Gwangmoks

Name	Frequency	Sum
Samgatmu Gwangmok [삼갓무광목]	67	
Guyongdo Gwangmok [구용도광목]	17	
Nomal Gwangmok [일반 광목]	6	
Gyeongmok [경목]	4	
Bokbu Gwangmok [복부광목]	1	
Mungaeryang Gwangmok [문개량광목]	1	101
Gatmungaeryang [갓문개양]	1	
Gatmuguyongdo [갓무구용도]	1	
Gwangmok Dae [광목大]	1	
Byeolsang Gwangmok [별상광목]	1	
Gwangmok Syeonpo [광목선포]	1	

A'를 부르는 명칭이었다. 三A 광목은 일본의 토요보 (とうようぼう, 東洋紡) 회사에서 생산한 광목으로 (The Dong-a Ilbo, 1932b), 1920년대 초반 당시 경성에서 인기 있는 직물 중 하나였다(The Dong-a Ilbo, 1922b). 1940년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삼A’를 ‘삼갈모’와 병기하였다(The Chosun Daily, 1940b). 이 기사를 통해 A자를 갈모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낯선 알파벳의 A자를 그와 형태가 유사한 우리 전통 관모인 갈모(Fig. 1)에 빗댄 것으로 추정된다.



Fig. 1. Galmo.

Adapted from National Folk Museum (n.d).
<https://www.nfm.go.kr>

구용도광목은 17회 기록되었으며, 광목으로 분류한 명칭 중 빈도가 두 번째로 높다. 구용도광목은 장기에 ‘구룡도광목’, ‘광목구용도’, ‘광목구용포’, ‘구용도’ 등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신문 기사를 통해 볼 때 구용도는 ‘九龍圖’, ‘九龍’ 등의 한자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The Chosun Daily, 1936; The Chosun Daily, 1940b). 구용도광목은 조선의 면포 수입회사인 공익사(共益社)가 1907년경에 三A 광목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가네보(カネボウ, 鐘紡) 회사와 특약하여 만든 광목의 상표이다(The Chosun Daily, 1936; The Chosun Daily, 1940b). 공익사는 구용도광목을 저렴하게 유통하여 三A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The Chosun Daily, 1936). 당시 신문 기사에 나타난 옷감 시세를 분석해보면, <Table 4>처럼 1921년 三A가 13냥

10전일 때 구용은 12냥 75전, 1923년 三A가 14냥 80전일 때 구용은 14냥 60전으로 20~35전 정도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24년에는 구용도의 가격이 三A보다 더 높은 시기도 있었다.

광목의 일종인 경목은 4회 기록되어 있다.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경목은 광목 중 한 필당 무게가 8파운드(Ib) 이하인 직물이다(The Dong-a Ilbo, 1932d). 『조선면업사』에는 ‘裏地用輕目’이라 하여 경목을 안감용[裏地用]이라 하였고(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

Table 4. Price change of Sam A and Guyongdo

1921.02.22.	1923.12.30.	1924.09.24.	1924.11.01.	1924.11.11.
Adapted from The Dong-a Ilbo (1921b). http://newslibrary.naver.com/	Adapted from The Dong-a Ilbo (1923). http://newslibrary.naver.com/	Adapted from The Dong-a Ilbo (1924a). http://newslibrary.naver.com/	Adapted from The Dong-a Ilbo (1924b). http://newslibrary.naver.com/	Adapted from The Chosun Daily (1924b). http://newslibrary.naver.com/

ric merchants, 1929),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경목을 ‘내광목(內廣木)’이라고 지칭하였다(The Dong-a Ilbo, 1932a). 이러한 기록을 통해 경목은 주로 안감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의 『조선면업사』에서는 죽표와 춘표를 경목의 시장표준품이라 하여(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경목의 제품으로 죽표와 춘표가 있었으며 두 상품은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표준적인 제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회만 기록되어 있는 북부광목은 일본의 핫토리 주식회사(はっとり, 服部 株式會社)의 한자 ‘服部’의 독음이 ‘복부’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면업사』에 따르면 핫토리 주식회사는 ‘쌍득리(雙得利)’ 표 옥당목을 만든 회사이다(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그 외 1회씩 기록되어 있는 문개량광목, 갓문개양, 갓무구용도, 광목大, 별상광목, 광목선포 등은 광목과 관련된 직물로 추정되나 자세한 특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한편 일반 광목의 경우 6회 기록되어 있다.

2. 옥양목(玉洋木)

옥양목은 방직기계로 평직으로 짠 후 표백한 면직물이다(Kang et al., 2015). 방직기계로 직조하여 폭이 넓고 촘촘해 표면이 매끄럽고 고와서 ‘옥(玉)’자가 붙어 옥양목이라 불리었다(Lee, 2000). 옥양목은 문헌에 따라 채금건(晒金巾)(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The Dong-a Ilbo, 1932a), 금건(金巾)[shirting](The Dong-a Ilbo, 1926; 1932d) 등으로도 기록되었다.

옥양목류는 장기에 기록된 다양한 면직물 중 두 번째로 빈도가 높다. 옥양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57회(18.6%) 기록되어 있다. 옥양목의 명칭으로는 <Table 5>처럼 ‘동작대옥양목’, ‘십이화옥양목’, ‘십팔자옥양목[옥양목십팔자]’, ‘구목단옥양목’, ‘금매옥양목[옥양목금매]’, ‘원방옥양목’, ‘납팔양목’, ‘화적도옥양목’, ‘동화도옥양목’, ‘이여도옥양목’, ‘십국화옥양목’, ‘화표옥양목’, ‘팔미인옥목’, ‘화원옥양목’ 등이 있다. 그리고 회사명이나 상표명이 붙지 않은 옥양목도 있었으며, 기록상태가 나빠 판독을 할 수 없는 옥양목도 일부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일반 옥양목’으로 칭한다.

옥양목류 중에서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동작대

Table 5. Names and frequency of Ok-yangmoks

Name	Frequency	Sum
Dongjakdae Ok-yangmok [동작대옥양목]	17	57
Sibihwa Ok-yangmok [십이화옥양목]	11	
Nomal Ok-yangmok [일반 옥양목]	7	
Sippalja Ok-yangmok [십팔자옥양목]	4	
Gumokdan Ok-yangmok [구목단옥양목]	3	
Geummae Ok-yangmok [금매옥양목]	2	
Wonbang Ok-yangmok [원방옥양목]	2	
Napparyangmok [납팔양목]	2	
Hwajyeokdo Ok-yangmok [화적도옥양목]	1	
Donghwado Ok-yangmok [동화도옥양목]	1	
Iyeodo Ok-yangmok [이여도옥양목]	1	
Sipgukwa Ok-yangmok [십국화옥양목]	1	
Hwapyo Ok-yangmok [화표옥양목]	1	
Palmiin Ok-mok [팔미인옥목]	1	
Hwawon Ok-yangmok [화원옥양목]	1	
Unidentified Ok-yangmok	2	

옥양목이다. 동작대옥양목은 옥양목류 총 57회 중 17회 기록되어 있다. 동작대옥양목은 ‘동작옥양목’, ‘동작대’ 등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동작대의 어원, 정의, 특징 등은 알 수 없다.

십이화옥양목은 11회 기록되어 있다. 십이화옥양목은 ‘십이화’, ‘십이화열옥양목’ 등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장기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 십이화옥양목의 명칭이 이 시기의 신문기사에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나 그와 유사한 ‘십이신화(十二神花)’와 ‘십이화신(十二花神)’라는 명칭은 서로 다른 기사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The Dong-a Ilbo, 1921a; 1922a). 먼저, ‘십이신화’는 1921년 8월 1일부터 1922년 3월 31일까지 연재된 『동아일보』 「주단포복시세」 기사에 ‘동작대’, ‘구목단’과 나란히 옥양목의 일종으로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한편 ‘십이화신’은 1922년 12월 3일 『동아일보』 기사에 구목단과 함께 1회만 기록되어 있다. 기록 횟수를 볼 때, 글자의 순서가 뒤바뀌어 사용되었을 뿐 두 명칭은 같은 직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십이신화[십이화신]옥양목에서 ‘신’이라는 글자를 생략하면 장기에 기록된 십이화옥양목이 되므로, 이들이 모두 동일한 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십팔자옥양목과 구목단옥양목은 각각 4회, 3회로 기록되어 있다. 두 직물의 어원, 정의, 특징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면업사』에서 ‘十八子’, ‘九牧丹’ 등은 중국 상해에서 수입되는 직물로 기록되어 있다(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금매옥양목, 원방옥양목, 납팔양목, 판독이 불가한 명칭의 옥양목이 각각 2회, 십국화옥양목, 화표옥양목, 팔미인옥목, 화원옥양목은 각각 1회씩 장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옥양목들의 어원과 정의, 특징은 알 수 없다. 그 외 1회씩 기록되어 있는 화적도옥양목, 동화도옥양목, 이여도옥양목의 경우 명칭에 ‘도’자가 붙어 있는 것이 공통점인데, 1921년 11월 14일자 『동아일보』 주단포목시세란에는 팔사도(八士圖), 호용도(好勇圖)처럼 ‘도(圖)’자가 붙은 옥양목이 소개되어 있다(The Dong-a Ilbo, 1921d). 장기와 신문 기사를 통해 볼 때 당시 옥양목의 상표명에 ‘도’자를 즐겨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 옥양목은 7회 기록되어 있다. 그중 옥양목이라는 명칭 뒤에 ‘頭號’자가 작게 쓰여진 경우가 1회 있었는데, ‘头号[tóuhào]’는 중국어로 ‘첫째(의)’, ‘최대(의)’, ‘가장 좋은’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RIKS], 1993). 그런데 옥양목 내에서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연도인 1914년의 장기에 기록된 16종의 옥양목의 한 필당 가격을 살펴보면 최고가는 ‘원방옥양목(83냥)’, 최저가는 ‘동작대옥양목(66냥)’이며, ‘옥양목 頭號(71냥)’는 최고가의 옥양목은 아니다. 따라서 이때의 ‘頭號’는 최상급의 옥양목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당목(唐木)

당목은 단원 II에서 서술한 것처럼 기계로 짠 서양산 면직물의 일종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면직물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조선휘보』에서는 당목이 처음에는 양목(洋木)을 부를 때 사용된 명칭이며, 광목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Yoshinaga, 1915). 또 『조선휘보』에는 ‘양목’을 ‘얇은 금건(金巾)’, ‘셔팅(シヤ-チング)’이라고 하였는데(Yoshinaga, 1915), 이때 셔팅은 shirting, 즉 옥양목이라는 의미다. 글을 쓴 일본인 요시나가 히코타로[吉永彦太郎]가 당시 조선에 유통되고 있는 직물을 매우 꼼꼼히 조사하여 기록을 남겼으나 직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음을 고려하며 이러한 기록을 보면, 당목은 특정 직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수입된 면직물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사전』에서도 당목은 ‘서양목’을

뜻하는 말이라 정의하였다(Government-general of Chōsen, 1980).

당목은 세포, 생세포 등으로도 호칭하였다. 여러 면직물의 상품 시세가 기록되어 있는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당목은 ‘세포(細布)’로 명시되어 있으며 당목의 상품으로 ‘비견(飛犬)’, ‘세락조(世樂鳥)’ 등을 소개하고 있다(The Chosun Daily, 1924a). 『조선면업사』에 따르면 ‘비견’과 ‘세락조’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생세포(生細布)라고 하였다(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따라서 당목은 『조선휘보』에 요시나가 히코타로의 글이 실린 1915년과 『조선일보』에 당목의 상품명에 명시된 1924년 즈음에는 당목과 유사한 면직물을 일본 회사에서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에 기록된 면직물 중 당목류는 <Table 2>처럼 총 5회(1.6%) 기록되어 있다. 그 명칭들은 <Table 6>처럼 ‘옥당목(玉唐木)’, ‘갓당목’, ‘의원당목’ 등이 있다.

먼저, 옥당목은 3회 기록되어 있다. 옥당목은 ‘쇄세포(晒細布)’라고도 하였다. 옥양목(玉洋木)을 쇠금건(晒金巾)으로도 표기하는 사례처럼(조선면사포상연합회 [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옥(玉)’자는 ‘쇄(晒)’자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옥당목은 옥양목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직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품명에 문헌에 따라 옥당목으로도 소개되고 옥양목으로도 소개되기 때문이다. 그 예로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옥당목의 상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진군(進軍)’(The Dong-a Ilbo, 1921a)이 『조선면업사』에서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옥양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조선면업사』에는 쇠세포, 즉 옥당목이 옥양목의 대용품으로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갓당목과 의원당목은 각각 1회씩 기록되어 있으며, 광목이나 옥양목의 다양한 상표명이 앞이나 뒤에 붙는 것처럼 상표를 뜻하는 말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들의 명칭의 정확한 어원과 정의를 파악할 수 없었다.

Table 6. Names and frequency of Dangmoks

Name	Frequency	Sum
Ok-dangmok [옥당목, 玉唐木]	3	
Gat Dangmok [갓당목]	1	5
Uiwon Dangmok [의원당목]	1	

4. 백난목(白欄木)

백난목은 일본산 소폭 면직물로, 가볍고 부드럽다. 『조선휘보』에 따르면 백난목은 일본산 면직물로, 표백한 목면[晒木綿]과 유사하며, 약칭은 난목(欄木)이다(Yoshinaga, 1915).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난목은 소폭쇄목면(小幅晒木綿)이라 하여(The Chosun Daily, 1938) 소폭의 면직물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내광목 한 필을 여섯으로 나누어 난목을 만들어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이 실렸다(The Chosun Daily, 1940a, para. 1).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가-제는 난목보다 부드럽다.”고 하여(The Dong-a Ilbo, 1928, para. 3) 난목의 부드러움을 가제(gauze)와 비교하였다. 또한 난목의 이칭인 연목(軟木)(The Dong-a Ilbo, 1932a)에는 ‘연하다’, ‘보들보들하다’, ‘부드럽다’는 의미의 연(軟)자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백난목은 일반인이 내광목, 즉 경목과 유사하게 느낄 정도로 비교적 가볍고 부드러운 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난목류는 장기에 기록된 다양한 면직물 중 세 번째로 빈도가 높다. 백난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장기에 총 54회(17.6%) 기록되어 있다. 백난목으로 분류한 명칭으로는 <Table 7>처럼 ‘백난목(44회)’, ‘백난목상(5회)’가 기록되어 있으며, ‘상백난목’, ‘백난목竹’, ‘백난목下’, ‘난목’, ‘상난목’ 등이 각각 1회씩 기록되어 있다.

백난목상, 상백난목, 상난목은 일반적인 품질의 백난목에 비해 높은 품질의 백난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1915년의 장기 중 백난목과 백난목상이 동일한 장기 문서에 함께 기록된 사례에서 두 직물의 1필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백난목은 4냥 5전, 백난목상은 7냥 7전으로 가격 차이가 3냥 이상이다. 동일한 문서는 아니나 1915

Table 7. Names and frequency of Baengnanmoks

Name	Frequency	Sum
Baengnanmok [백난목]	44	
Baengnanmok Sang [백난목상]	5	
Sang Baengnanmok [상백난목]	1	
Baengnanmok Juk [백난목竹]	1	54
Baengnanmok Ha [백난목下]	1	
Nanmok [난목]	1	
Sangnanmok [상난목]	1	

년에 작성된 다른 장기 문서에서 상백난목·상난목의 1필당 가격은 7냥 8전이다. 따라서 백난목상, 상백난목, 상난목에서 단어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붙은 ‘상’과 ‘上’은 상등의 제품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백난목竹에서 ‘竹’이라는 글자는 그 당시 유통되었던 백난목의 상표명의 일종이다. 1932년 『동아일보』에는 <Fig. 2>처럼 쇠목면, 즉 백난목의 상품으로 죽표(竹票)와 춘표(椿票)가 명시되어 있다(The Dong-a Ilbo, 1932c).

그 외 연대 이상의 동일한 장기 문서에 백난목竹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백난목下라는 명칭이 있다. 두 직물의 필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백난목下는 8냥 5전, 백난목竹은 약 7냥으로, 백난목下가 죽표보다 가격이 높다. 따라서 백난목下는 하등품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더 자세한 특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5. 목모본단(木摹本緞, 木毛本緞)

목모본단은 수자직으로 직조한 큰 무늬가 있는 면직물이다. 『조선휘보』에서 목모본단은 영국산으로 분류한 면직물로 중국산 견직물인 모본단(摹本緞)을 모방했으며 순수한 서양의 모양과 중국의 모양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되었다(Yoshinaga, 1915). 『조선면업사』에서도 목모본단은 수자직의 면직물로 큰 문양[太紋]이 있다고 하였다(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목모본



Fig. 2. ‘竹’ and ‘椿’ labels. Adapted from The Dong-a Ilbo (1932c). <http://newslibrary.naver.com/>

단(木毛本織)은 양속(羊續)의 일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The Dong-a Ilbo, 1921c).

목모본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27회(8.8%) 기록되어 있다. 목모본단으로 분류한 명칭으로는 <Table 8>처럼 ‘홍목모변단[홍목모본단]’, ‘녹목모변단[녹목모본단]’, ‘남송목모변단[남송목모본단]’, ‘자목모변단[자목모본단, 자목본단]’, ‘분홍목모변단[분홍목모본단]’, ‘홍목모본단녹’, ‘녹목모변단상의’, ‘분홍목모변단상의’, ‘홍목모변단치마’ 등이 있다. 목모본단은 홍(10회), 녹(6회), 남송(4회), 자(4회), 분홍(3회) 등 모든 사례에 색상을 나타내는 글자가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는 상의, 치마와 같이 의복명까지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목모본단은 다른 옷감들과 달리 염색된 상태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면직물들과 달리 상의, 치마 등 옷의 형태로 제작되어 유통되었거나 의복의 용도가 정해진 상태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른 면직물들은 대개의 평직으로 직조되나 목모본단의 경우 수자직의 직물이므로 고가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상 염색과 매염이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6. 반포(斑布)

반포는 흑색이나 청색에 흰색을 섞어 제작한 직물이다(Lee, 2020). 『조선휘보』에서 반포는 황목(黃木)과 함께 줄무늬가 있는 조선의 전통 면직물로 소폭 목면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수건감, 머리띠[鉢券]감이라 하였다(Yoshinaga, 1915). 반포는 ‘반비(班比)’라고도 하였고(Yoshinaga, 1915), 반비는 ‘반(班)뵈’라고도 하였다(Government-general of Chōsen, 1980). Lee(2020)가

반포의 실증 유물로 추정된 <Fig. 3>의 직물은 경·위사에 짙은 청색으로 선명한 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격자무늬가 나타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17).

반포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24회(7.8%) 기록되어 있다. 장기에서 반포로 분류한 기록은 <Table 9>처럼 ‘반포’, ‘반포 新尺’, ‘반포 침척[침척]’ 등이다. 반포는 장기에서 다른 면직물들과 달리 신척(新尺)이나 침척이라는 단어가 직물명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Lee(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에 기록된 신척과 침척은 1910년대 전반 일본식 제도의 도입에 의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장기에서 신척과 침척이 표기된 연도를 살펴보면, ‘반포 신척’은 1914년, 1915년, 연대 미상의 세 문서에 기록되었고, ‘반포 침척’은 모두 1915년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표기가 없는 반포는 1910년부터 1915년까지의 장기 문서에 골고루 나타난다. 장기에 기록된 면직물 중 반포에만 신척과 침척이 표기



Fig. 3. Figured cotton (1909). Reprinted from NRICH (2017). p. 585.

Table 8. Names and frequency of Mongmobondans

Name	Frequency	Sum
Hong Mongmobondan [홍목모변단, 홍목모본단]	8	
Nok Mongmobondan [녹목모변단, 녹목모본단]	5	
Namsong Mongmobondan [남송목모변단, 남송목모본단]	4	
Ja Mongmobondan [자목모변단, 자목모본단, 자목본단]	4	
Bunhong Mongmobondan [분홍목모변단, 분홍목모본단]	2	27
Hong Mongmobondan Nok [홍목모본단녹]	1	
Nok Mongmobondan Sangui [녹목모변단상의]	1	
Bunhong Mongmobondan Sangui [분홍목모변단상의]	1	
Hong Mongmobondan Chima [홍목모변단치마]	1	

Table 9. Names and frequency of others

Sort	Name	Frequency	Sum
Banpo [반포]	Banpo [반포]	17	24
	Banpo Shincheok [반포 新尺]	4	
	Banpo Chimhyeok [반포침혁, 반포침척]	3	
Moreung [모름]	Heuk Morong [흑모름, 흑모룽, 흑모로]	8	12
	Hong Moreung [홍모름, 홍모른]	2	
	Yanghusik Heuk Morong [양후식 흑모름]	1	
	Yu Morong [유모름]	1	
	Baengmok [백목]	9	
Baengmok Chungmok [백목 忠木]	1		
Oseungpo [오승포] · Saseungpo [사승포]	Oseungpo [오승포]	2	6
	Oseung [오승]	1	
	Saseungpo [사승포]	2	
	Saseung [사승]	1	
Mamidan [마미단]	Sye Mamidan [세마미단]	1	5
	Sye Mami [세마미]	1	
	Mamidan [마미단]	1	
	Hisaeng Mamidan [히색마미단]	1	
	Godongsaek Mamidan [고동색 마미단]	1	
Gaeryangmok [개량목]	Gaeryangmok [개량목, 개양목]	5	5
Chilpohangnamok [칠포항라목]	Chilpohangnamok [칠포항라목]	1	1

된 요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7. 모름(毛綾)

모름은 능직으로 직조하며 표면에 능선이 보이는 광택이 있는 면직물이다. 『조선휘보』에 모름(毛綾)은 면직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면에 능선이 있고 롤(roll) 후처리로 인한 광택이 있다고 하였다(Yoshinaga, 1915). 이때 롤에 의한 후처리는 캘린더링(calendering) 가공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모름은 세마미단(細馬尾緞)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능직물이며, 영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직물이라고 하였다(Yoshinaga, 1915).

모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12회(3.9%) 기록되어 있다. 장기에서 모름으로 분류한 기록은 <Table 9>처럼 ‘흑모름[흑모름, 흑모로]’, ‘홍모름[홍모른]’, ‘양후식 흑모름’, ‘유모름’ 등이다. 모름은 흑(8회), 홍(2회), 유(1회) 등 색상을 나타내는 글자가 붙어있다. 이처럼 모름은 목모본단과 더불어 다른 면직물과는 달리 색상이 명칭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인데, 능직인 직물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선염된 상태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백목(白木)

백목은 일본인들이 조선의 전통적인 면직물, 즉 농촌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무명을 이르는 말이다(The Central Research Laborator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1930, as cited in Kwon, 1996). 잣물에 담긴 후 햇볕에 널어 표백한 것으로 백목면(白木綿)이라고도 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3). 백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면화로 만든 실을 재래 베틀로 직조하여 거칠지만 두터워서 보온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였다(The Central Research Laborator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1930, as cited in Kwon, 1996).

백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10회(3.3%) 기록되어 있다. 장기에서 백목으로 분류한 기록은 <Table 9>처럼 ‘백목’, ‘백목 忠木’ 등이다.

9. 오승포[오승](五升布), 사승포[사승](四升布)

『조선어사전』에 따르면 오승포는 중등품의 목면, 마포라고 하였고(Government-general of Chōsen, 1980), 사승포는 석새, 즉 3승의 베보다 품질이 조금 더 좋은 삼베라고 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d.).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오승포[오승], 사승포[사승] 등은 면직물 또는 마직물을 승수, 즉 섬세함에 따라 호칭한 명칭으로 추정된다. 이때 ‘승(升)’은 직물의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승은 경사 올의 수가 80올인 경우를 뜻한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c). 승수가 클수록 섬세하다. 1914년의 동일한 문서에 기록된 오승과 사승의 1척(尺)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오승은 5전, 사승은 4전으로 섬세할수록 가격이 더 높았다.

오승포[오승], 사승포[사승]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6회(2.0%) 기록되어 있다. 그 명칭으로는 <Table 9>처럼 ‘오승포’, ‘오승’, ‘사승포’, ‘사승’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오승포와 사승포를 면직물로 분류한 근거는 장기에 적힌 물품의 기록 순서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송화선 장기에는 물품을 적을 때 섬유성분이 동일한 직물들끼리 이어 기록하였는데, 오승포, 사승포, 오승, 사승의 총 6회 기록 중 4건이 면직물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오승포(1회)와 사승포(1회)는 오승포-사승포-반포-삼갑무광목의 순으로, 오승(1회)과 사승(1회) 또한 반포-사승-오승-경목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 나머지 2회는 직물과 무관한 인두 등의 도구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10. 마미단(馬尾緞)

마미단은 서양 직물의 일종이다(Government-general of Chōsen, 1980). 마미단은 ‘마미’라는 약칭으로도 호칭하였으며, 대마미단(大馬尾緞)은 실켓(silket) 품의 능직의 영국산 면직물이다(Yoshinaga, 1915). 모롱 부분에서 전술한 것처럼 세마미단은 모롱과 외관이 유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광택이 있고 표면에 능선이 보이는 능직의 면직물이었을 것이다.

마미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5회(1.6%) 기록되어 있다. 장기에서 마미단으로 분류한 기록은 <Table 9>처럼 ‘세마미단’, ‘세마미’, ‘마

미단’, ‘히색마미단’, ‘고동색 마미단’ 등이다. 마미단도 목모본단과 모롱처럼 회색, 고동색 등 색상이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능직인 직물 조직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것으로 추정된다.

11. 개량목(改良木)

개량목은 경·위사 모두 기계방적사, 즉 기계로 방적한 방적사로 직조한 소폭의 직물이다(Kwon, 1996).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기계방적사가 수입됨에 따라 농촌에서도 이를 널리 소비하였으며, 기계방적사의 사용 여부와 정도에 따라 개량목면 외에도 재래목면, 신식목면, 방적목면 등의 명칭이 생겼다(Kwon, 1996).

개량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명칭은 <Table 2>처럼 총 5회(1.6%) 기록되어 있다. 장기에서 개량목으로 분류한 명칭에는 <Table 9>처럼 ‘개량목’, ‘개양목’ 등이 있다.

12. 칠포항라목

장기에서 칠포항라목은 <Table 2>처럼 단 1회(0.3%) 기록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그 어원과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로 견직물로 알려진 항라지만, 문헌 기록과 일부 유물에 저항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칠포항라목’이라는 기록을 통해 면섬유로 짠 항라와 관련된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도매상인 송화선 장기의 기록과 당시의 문헌 자료를 통해 20세기 초 우리나라 의생활에 새롭게 나타난 면직물의 종류를 분석하고, 명칭별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장기는 1910년대 144건, 1920년대 1건, 연대 미상 15건으로, 본 연구는 총 160건의 장기에 나타난 면직물의 명칭별 개념, 특징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에 기록된 면직물은 광목, 옥양목, 당목, 백난목, 목모본단, 반포, 모롱, 백목, 오승포[오승]·사승포[사승], 마미단, 개량목, 칠포항라목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광목류는 9가지, 옥양목류는 15가지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매우 다

양한 상품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국을 비롯한 서양 및 일본산 면직물이 근대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량 유통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에 기록된 광목(32.9%), 옥양목(18.6%), 백난목(17.6%), 목모본단(8.8%), 모름(3.9%), 당목(1.6%), 마미단(1.6%)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광목류는 토요일, 공익사, 핫토리 등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의 여러 회사에서 생산된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홍천읍에서 활동하던 도매상인의 장기 문서에 외국산 면직물이 다량 기록된 점을 통해 외국에서 수입된 직물이 당시 강원도 지역까지도 유통되고 있었음이 주목할 만하다.

셋째, 20세기 초 광목의 수입 면직물이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전통 옷감의 규격인 소폭 면직물에 대한 수요 또한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에는 백난목, 반포, 백목, 오승포[오승]·사승포[사승], 개량목 등의 소폭 면직물이 총 99회(32.3%)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 광목(32.9%), 옥양목(18.6%), 당목(1.6%) 등 수입된 기계직 면직물 중 광폭인 것은 163회(53.1%)이었으나 소폭 면직물에 대한 수요도 상당량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우리 전통 의복의 재단법에는 소폭의 면직물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소폭의 면직물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문헌 기록을 통해 볼 때 소폭의 면직물 중에는 해외에서 생산된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20세기 초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다양한 명칭의 면직물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항이 우리나라 의생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복식사, 업직사뿐만 아니라 국어사, 경제사, 문화교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장기에는 물품의 수량과 그에 따른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통일된 단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직물별 가치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를 보완할 예정이다.

1. 사사

본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496).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함.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본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496).

6. 저자의 기여

SJ은 연구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원고 작성을 담당하였고, EL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과 검토를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장수현 경상국립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생
이은진 경상국립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References

- Bibyonsa. (1847). 賣市人에게弊端을 물은 뒤에 대책을 보고 하는 備邊司의 啓 [The words of a Bibyonsa who reports countermeasures after asking the Gongin and the Siin for evils]. The Korean History Database. https://db.history.go.kr/joseon/level.do?levelId=bb_234r_001_01_0270&types=r&year=1847&month=01
- Cho, I., & Lee, E. (2016). A study on living culture of Korea through accounting records written by Song, Whasun at Hongcheon-Up in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1(1), 148–165. <http://dx.doi.org/10.12940/jfb.2017.21.1.148>
- Chun, H.-S., & Kang, B.-N. (2019). Overview of Joseon's textile industry in the late 19th century-early 20th century recorded in foreign publication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2(2), 81–102. <http://dx.doi.org/10.16885/jkct.2019.06.22.2.81>
- Kang, S. C., Kim, M. J., Kim, C. H., Baik, Y. J., Lee, E. J., Cho, W. H., Cho, H. S., & Hong, N. Y. (2015). *Dictionary of Korean costumes*. Minsokwon.
- Kim, N. Y. (2022). *Study of modern ogyangmok*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S.-Y. (2018). Kinds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imported clothing and textiles in Korea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 Costume*, 68(8), 32–51. <https://doi.org/10.7233/jksc.2018.68.8.03>
- Kim, S.-Y. (2021). Types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textile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during the port-opening era: Focusing on cotton, silk, and woollen cloth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5(5), 770–787. <http://doi.org/10.5850/JKSC.2021.45.5.770>
- Kwon, T. E. (1988). *Cotton cultivation and textile manufacture in moder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won, T. E. (1996). *한국근대면업사연구* [Researching the history of the modern Korean cotton industry]. Ilchokak.
- Kyungbang. (Ed.). (2009). *Kyungbang 90-years history: 1919 ~2009*. Kyungbang.
- Lee, E. J. (2000). *A study of the textiles for Hanbok since 1945 lib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H. C. (2008). 20세기 초 흥천시장의 도매상인 송화선과 그 문서 [Song Hwa-seon, a wholesaler in Hongcheon market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his documents]. *벌력문화* [Beolryeok Culture], 22, 50–92. <https://local.nature.org/m0xff>
- Lee, J.-S. (2005). Monetary circulations of Choson between the mid-sixteenth and the early eighteenth centuries investigated by everyday journals and records of land trades. *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32, 95–148.
- National Folk Museum. (n.d.). *갈모* [Galmo]. https://www.nfm.go.kr/user/extra/home/totalSearch/totalSearchCollectionView/jsp/Page.do?startCount=0&moreStartCount=5&sort=&pageRow=15&detailUrl=nfm_relic_kor&pageNo=2&query=%EA%B0%88%EB%AA%A8&qOld=%EA%B0%88%EB%AA%A8&qTarget=#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0). *서구 문화와의 만남* [Encounters with Western culture]. Kyungin Publishing.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d.). 사승포 [Saseungpo]. In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May 1, 2024,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82%AC%EC%8A%B9%ED%8F%AC>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7). *Korean collection at the museum für völkerkunde hamburg, german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Pang, K. C. (1984). On the monetization of tax in the late Chos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5, 117–201.
- Park, J. K. (2014). *Change of Korean clothing custom due to the imported textiles from 1876 to 1945*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Ree, J. (2020). A study on the meaning and types of Banpo [斑布] during the Joseon dynasty.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53(3), 164–183.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3.164>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993). *(現代) 中韓辭典* [Modern Chinese-Korean dictionar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 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of Russia. (1984). *국역 한국지* [Discription of Korea] (Date research department of Hanguk Jeongsin Munhwa Yeonguwon, S. Choi, & B. R. Kim, Trans.). Hanguk Jeongsin Munhwa Yeonguwon. (Original work published 1900)
- Sim, Y., & Park, W. (2003). *Najunsaetgolnai*.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a). 조선방직주식회사 [Joseon textile co., ltd]. I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November 20, 2024, from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9864>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b). 광목 [Cotton fabric]. I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August 15, 2024, from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5115>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c). 마직 [Hemp weaving]. I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May 1, 2024, from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451>
- The Chosun Daily. (1924a, April 23). 京城綿絲布(二十二日) [Gyeongseong cotton fabric(22nd)].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04230023920204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4-04-23&officeId=00023&pageNo=2&printNo=1322&publishType=00020>
- The Chosun Daily. (1924b, November 11). 物價 [Price].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11100239201022&officeId=00023>
- The Chosun Daily. (1936, January 10). 一業連綿兩在代(九) 白木한포예두兩두돈 “三甬장” 防邊苦心談 [One between two generations (9) Two ryang two don for the price of one Baekmok].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6011000239202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6-01-10&officeId=00023&pageNo=2&printNo=5256&publishType=00020>
- The Chosun Daily. (1938, February 20). 小幅晒木綿(단목) 最高價格制 [Best price for Nanmok].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802200023920802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8-02-20&officeId=00023&pageNo=8&printNo=6026&publishType=00020>
- The Chosun Daily. (1940a, April 19). 廣木暴利十八萬圓 [180,000 won for mining]. Naver Newlibrary. <https://news>

- 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004190023920203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0-04-19&officeId=00023&pageNo=2&printNo=6809&publishType=00020
- The Chosun Daily. (1940b, February 1). 財界秘話에서 又靑生 [Behind the scenes in the business world].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002010023920401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0-02-01&officeId=00023&pageNo=4&printNo=6732&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1a, August 1). 綢緞布木時勢 緞屬市價 [The market price of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1080100209202036&editNo=1&publishDate=1921-08-01&officeId=00020&pageNo=2&printNo=338&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1b, February 22). 綢緞布木時勢 [The market price of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10220020920205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1-02-22&officeId=00020&pageNo=2&printNo=178&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1c, May 14). 綢緞布木時勢 [The market price of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105140020920206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1-05-14&officeId=00020&pageNo=2&printNo=259&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1d, November 14). 商況 [Commercial conditions].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111140020920203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1-11-14&officeId=00020&pageNo=2&printNo=443&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2a, December 3). 碧潼布木價減下 [Reducing the price of Byeokdong cloth].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2120300209204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2-12-03&officeId=00020&pageNo=4&printNo=827&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2b, January 8). 綿絲布高騰 [Cotton fabric prices soar].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201080020920204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2-01-08&officeId=00020&pageNo=2&printNo=498&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3, December 30). 綢緞布木時勢 [The market price of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312300209201001&officeId=00020>
- The Dong-a Ilbo. (1924a, September 24). 綢緞布木 [The market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09240020920401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4-09-24&officeId=00020&pageNo=4&printNo=1488&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4b, November 1). 綢緞布木 [The market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4110100209201001&officeId=00020>
- The Dong-a Ilbo. (1926, July 9). 米豆取引所 [Rice and soybean exchange].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607090020920401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6-07-09&officeId=00020&pageNo=4&printNo=2096&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28, December 31). 甞스록은 가령에 준비 해둘 약품 (二) [Medications to keep in your home]. Naver New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8123100209203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8-12-31&officeId=00020&pageNo=3&printNo=3002&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32a, October 21). 經濟用語 (44) 綿絲 [Economic terminology (44) cotton thread].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210210020920801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2-10-21&officeId=00020&pageNo=8&printNo=4254&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32b, October 23). 經濟用語 (45) 綿布 [Economic terminology (45) cotton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210230020920801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2-10-23&officeId=00020&pageNo=8&printNo=4256&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32c, October 25). 經濟用語 (46) 綿布 [Economic terminology (46) cotton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2102500209208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2-10-25&officeId=00020&pageNo=8&printNo=4258&publishType=00020>
- The Dong-a Ilbo. (1932d, October 26). 經濟用語 (47) 綿布 [Economic terminology (47) cotton cloth]. Naver Newslibrary.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210260020920801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2-10-26&officeId=00020&pageNo=8&printNo=4259&publishType=00020>
- Yoshinaga, H. [吉永彦太郎]. (1915, March 1).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 [Glossary of names of Korean dyed fabrics]. 朝鮮

彙報 [Joseon hwibo]. 朝鮮總督府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조선면사포상연합회 [Joseon federation of cotton fabric merchants]. (1929). 朝鮮綿業史 [Joseon cotton business].

조선총독부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1980). 朝鮮語辭典 [Korean dictionary]. 국서관행회 [National book publishing association].